회의자료
'16.4.22(금), 15:00~17:00, 대통합위(19층)

함께하자! 대한민국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 언론인 세미나』 자료

2016. 4. 22.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목 차 Contents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 언론인 세미나(제1차)』 개최 계획(안) ····· 1

▌ 발제문 ····· 3

20대 총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김춘식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 언론인 세미나』 운영계획 ····· 35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 언론인 세미나(제1차)』 개최 계획(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견언론인 논의의 장** 마련

※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연간 약 8회 개최 예정이며,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언론인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

○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론의 **사회통합기능 관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갈등극복**을 위한 **취재·제작·보도 제안사항 도출**

○ **건강한 저널리즘**과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정책적 과제** 논의 등

□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4. 22(금), 15:00~17:00, 대통합위(19층 대회의실)

○ 주제 : **"여론조사의 언론 활용 현실과 개선과제"**

○ 사회 : **진 경 호(서울신문 부국장, 세미나 간사)**

□ 세부 계획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5:00-15:10(10')	인사말씀	통합위
15:10-15:40(30')	〈전문가 발제〉 "20대 총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김춘식 교수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5:40-16:50(70')	종합 토의	참여자 전체
16:50-17:00(10')	마무리 말씀	

※ 세미나 종료 후 2016년 전체 일정 및 주제 검토

□ 소요예산 : 일반수용비(201-01), 사업추진비(240-01)

○ 지침에 따른 참석(발제)수당, 자료집 인쇄 및 다과비 등 집행

[붙임]

언론인 세미나 참석대상 Pool

소속	직함	성명	비고
연합뉴스	부국장	김민철	2015 포럼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2016 포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선호	2015 포럼
YTN	부국장	김진호	2015 포럼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박주병	2016 포럼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선희	2016 포럼
뉴시스	부국장(정치부장)	염영남	추천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	추천
채널A	사회부장	이명건	2015 포럼
동아일보	편집위원	이정훈	2016 포럼
KBS	보도위원	정필모	2015 참여
서울신문	부국장	진경호	2015-2016 포럼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최영재	2016 포럼
국민일보	부국장	최현수	2016 포럼
문화일보	논설위원	황성준	2016 포럼

* 가나다 순

함께하자! 대한민국

발 제 문

김 춘 식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대 총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김 춘 식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대 총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김 춘 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chunsik@hufs.ac.kr





목차

I. 전형적인 문제점
II. 구체적 사례
III. 여론조사 예측 실패 원인
IV.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VI. 결론 및 제언

I. 전형적인 문제점 (1)

[경향신문 4월 15일자]

경향신문

2016년 04월 15일
10면 (종합)

집전화만 의존… 스마트폰 세대 '숨은 표심' 놓쳤다

여론조사, 왜 안 맞나

집전화 없는 가구 '약 40%'
젊은층·직장인 의견 미반영
응답률 10% 안될 때가 '절반'
출구조사는 실제 결과 근접



선거 벽보 철거 20대 총선 다음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n0307@kyunghyang.com

KBS와 연합뉴스(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45.8%의 지지를 얻어 28.5%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17.3%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조사기관 대부분도 오 후보가 정 후보를 꺾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투표함을 개봉한 결과 정 후보는 52.6%를 얻어 오 후보(39.7%)를 12.9%포인트 차로 꺾고 6선에 성공했다. 서울 은평을 역시 내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을 당당해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더민주 강병원 후보가 승리했다.

여론조사 기관들 예측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거 빗나갔다. 응답률이 10%가 채 안되는 '날림 조사' 자료들이 각 당 후보자 공천 무너 전체 관세 예측에까지 활용되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더민주는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은 11석을 각각 가져간다. 이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은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던 여론조사 기관들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론조사 기관들은 새누리당은 157~175석을 얻고, 더민주는 83~100석, 국민의당은 25~32석을 예상했다. 여론조사가 주요 접전지 승패는 물론 전체 판세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는 집전화에 의존한 조사 방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집전화가 없는 가구가 40%에 달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4000만 명을 넘지만 총선 여론조사는 대부분 집전화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휴대전화는 전화번호부가 없어 지역별로 가주사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집전화 보유율도, 응답률도 낮은 젊은층이나 직장인들 표심이 제대로 잡히기 어려운 구조다.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조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성능이 어렵다.

낮은 응답률도 문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자료 총 816건을 분석한 결과 응답률이 10%가 안되는 경우가 50%가 넘는다. 응답률이 3% 미만인 것도 76건이나 됐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이재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업계를 대신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성찰하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사를 모든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년 전 총선에서 방신을 당했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번엔 비교적 실제 수치에 가까웠다. 3사는 출구조사를 토대로 새누리당 118~14?석, 더민주 97~128석, 국민의당 31~43석을 예상했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30.2×10.?)cm

I. 전형적인 문제점 (2)

[한국일보 4월 15일자]

한국일보

2016년 04월 15일
11면 (선거)

또 헛방 친 여론조사… "휴대폰 활용·추가 가중치" 목소리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사과문
"유선전화 조사만으론 한계
직전 선거 득표율 등 적용을"

안심번호 정당 경선에만 제공
여론조사 기관들 불만 많아
출구조사 '50m 규정'도 논란

선거 여론조사는 이번에도 헛방이었다. 4·13 총선에서 155~166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상당수 격전지의 승패도 예측과 엇갈렸다.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급기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 여론조사의 한계를 실토하며 휴대전화 조사, 가중치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유선전화 조사만으로는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어려워졌고, 출구조사 역시 제1당을 맞히지 못했다"며 "직전 선거의 득표율 같은 선거통계를 가중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선전화는 가입률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낮에 집에 있는 어르신들의 응답이 과다하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른바 '여당 과대 표집' 현상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예상 성적이 부풀려진 이유다. 반면 휴대전화는 가입자가 이미 100%를 넘어 연령별로 고른 응답이 가능하다. 오차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가상의 개인번호)는 현행법상 정당 경선을 위해서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침해소지 때문이라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은 불만이 많다.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로는 특정 지역구의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어 유선전화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치 적용 문제도 논란이다. 통상 성별, 연령, 지역 같은 인구통계만으로 기본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은 무시된다. 따라서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앞선 선거의 여야 득표율 같은 정치 지표를 추가 가중치로 반영해 숨겨진 야당 표심을 보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연령대를 골고루 반영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 행위는 연령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들쭉날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앙선관위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이 같은 추가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추가 가중치를 반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전무하다.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자연히 조사기관들의 불만은 크다. 이처럼 완곡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이,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양산되고 있다.

출구조사를 투표소 50m 밖에서만 하는 현 규정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투표자를 따라가다 놓치는 경우가 속출하다 보니 표본을 일정하게 추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김광수 기자

(30.4×14.5)cm

I. 전형적인 문제점 (3)

東亞日報 [동아일보 4월 11일자] 2016년 04월 11일 35면 (사설/칼럼)

막판여론 공표 막는 '깜깜이 선거', 표심 왜곡시킬 판

각 당이 어제 자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4·13총선 예상 의석수를 새누리당은 145석 내외,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이하, 국민의당은 35석 내외로 추정했다. 주요 여론조사기관 4곳이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때까지의 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율을 합산해 새누리당 157~175석, 더민주당 83~100석, 국민의당 25~31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어느 당이 엄살을 부리고 어느 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 또 어떤 돌풍이 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일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호소해 지지층 사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민주당이 어제 "새누리당에서 엄살과 쇼를 부리고 있는데 180석 정도의 거대 여당이 출현할 것"이라며 야권 지지층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것과 판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만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지지자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선 3번 찍겠다는 유권자가 많다"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자신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각 당의 주장만 사실 여부도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선진국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전 일주일 넘게 공표를 금지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가 1월 정당만이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것도 유권자의 '정보 비대칭'을 증폭시켰다. 정당들은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구입해 당내 경선에 활용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해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발표하는 판세 분석이 정확한 것인지, 선거 전략인지 알 수가 없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흑색선전이 유통돼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는 일이다.

2002년 야권에서 노무현-정몽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각 정당은 여론조사로 후보를 공천하고, 여론조사를 무기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가 9일 1403건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1.7배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는 응답률도 떨어지는데 등록기준의 문턱이 낮아 부실한 조사를 심의위가 걸러내지도 못하고 있다. 사람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선거를 오차범위가 크고 오류도 많은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외주 민주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 여론조사를 걸러내는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선거 하루 전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18.6*13.4)cm

I. 전형적인 문제점: 여론조사 전문가 지적

[한국기자협회보 4월 17일자]

"유선 전화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마치 놀이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표를 살 돈이 없어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재로선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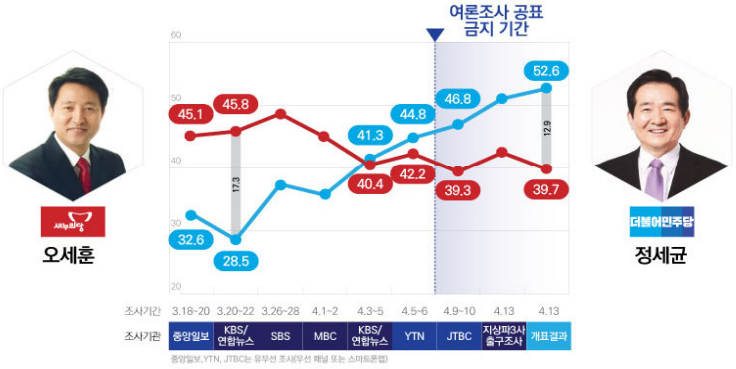
(여론분석회사 오토오모니터, 정호훈 PR 컨설턴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안심번호를 이용했더니 결과가 거의 근접하게 나왔다. 안심번호를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정묵 부소장)

II. 구체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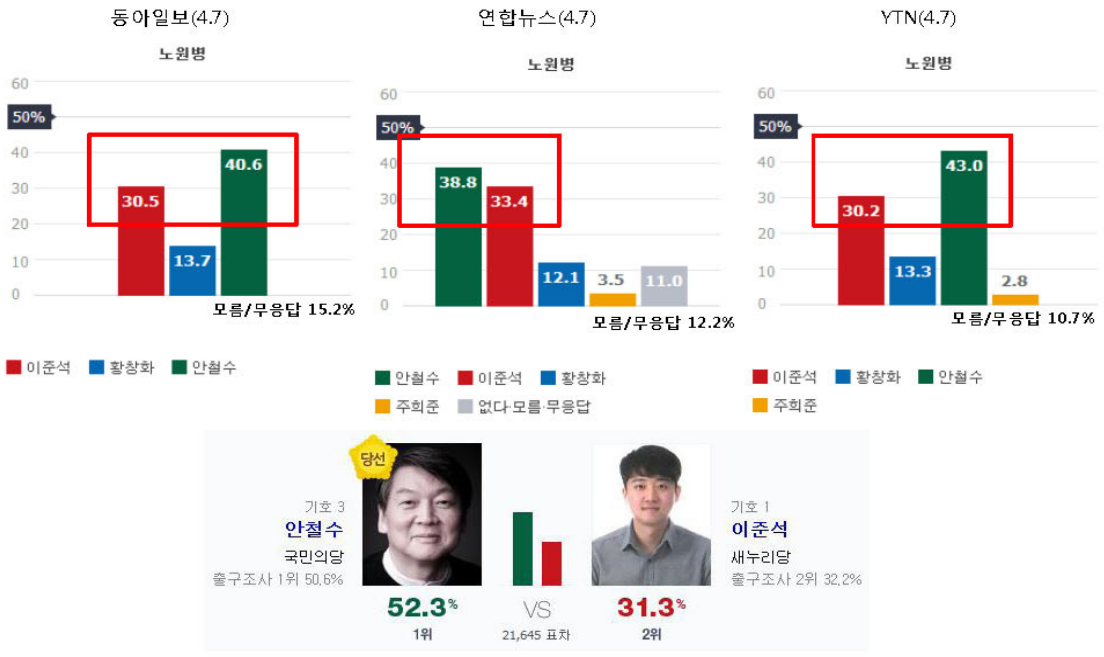
4.13 총선 서울 종로구
주요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 비교해보니



"KBS 여론조사 오세훈 45.8%, 제가 28.5%.
17.3%p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곡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월 24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 트위터)

[사례 1] 노원병



[사례 1] 노원병

노원병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연령비율 (조사대상비율/ 전체유권자비율)	표본 추출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가중방법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4.4 13-22 4.5 10-22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12.0% /17.6% 30대 13.0% /18.1% 40대 23.2% /21.0% 50대 24.0% /19.9% 60대 이상 27.8% /23.4%	유선전화면접 100%	6.8%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연합뉴스	코리아리서치센터	4.3 10-22 4.4 19-22 4.5 10-11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9.8% /17.6% 30대 8.0% /18.1% 40대 26.2% /21.0% 50대 26.0% /19.9% 60대이상 30.0%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6%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YTN	마크로밀엠브레인	4.5 13-22 4.6 10-22	유권자 504명	20대 이하 15.1% /17.6% 30대 14.3% /18.1% 40대 16.7% /21.0% 50대 22.6% /19.9% 60대이상 31.3% /23.4%	유선전화면접 70% 무선전화면접 30%	16.8%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사례 1] 노원병

동아일보(4.7 A5면)

東亞日報

2016년 04월 07일 (05면 (정치)

서울 노원병 안철수, 이준석에 10.1%P차이로 앞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맞붙은 서울 노원병은 안 후보와 이 후보의 양강 구도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 후보는 40.6%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0.5%)를 10.1%포인트 앞섰다. 황 후보는 13.7%를 얻었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안 후보(39.8%)와 이 후보(32.4%) 간 격차가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30% 이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후보(55.4%)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다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안 후보의 영향력은 정당지지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당(31.4%)이 새누리당(29.4%)과 더민주당(20.8%)을 앞섰다. 3일 발표된 서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42.8%)가 이 후보(31.1%)와 황 후보(13.6%)를 제쳤다.

안 후보 측은 "3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3당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결과로 보인다"며 "10% 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접전 양상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15.5*8.2)cm

연합뉴스(4.7)

격차 벌어지는 노원병…안철수 38.8% vs 이준석 33.4%
오차범위안 격차이지만 2주전 0.8%p→5.4%p로 커져

4·13 총선 관심지역인 서울 노원병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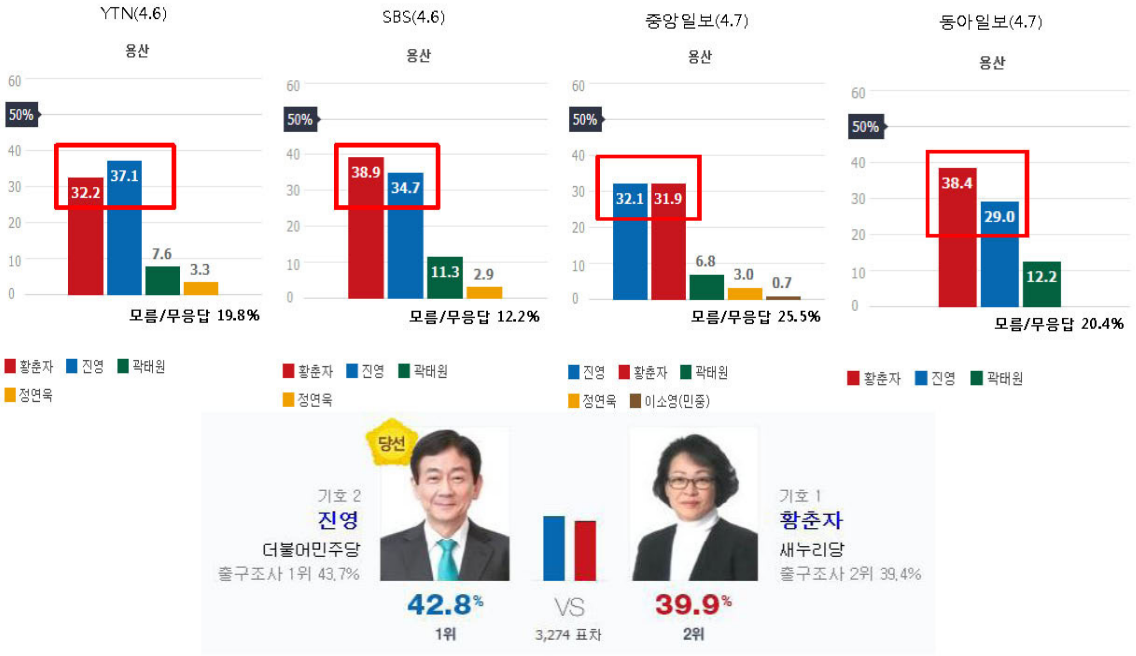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지난 3~5일 노원병 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 결과 안 후보는 38.8%의 지지율로 이 후보(33.4%)를 5.4%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두 후보간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23일 연합뉴스·KBS 여론조사 때의 0.8% 포인트에 비해 더 벌어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안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직업별로도 '무직·기타'에서 이 후보가 안 후보를 제쳤을 뿐 기타 전 직종에서 안 후보가 고른 지지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에선 안 후보 50.8%, 이 후보 26.3%로 두 후보간 차이가 더 컸다.

조성흠 기자

[사례 2] 용산



[사례 2] 용산

용산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연령비율 (조사대상비율/ 전체유권자비율)	표본 추출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가중방법
YTN	마크로밀엠 브레인	4.3 18-22 4.4 10-22 4.5 10-12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16.6% /17.6% 30대 13.6% /18.1% 40대 16.0% /21.0% 50대 22.6% /19.9% 60대 이상 31.2% /23.4%	유선전화면접 70% 무선전화면접 30%	21.5% /95%신뢰수 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SBS	TNS KOREA	4.2 10-22 4.3 10-22 4.4 10-22 4.5 10-18	유권자 504명	20대 이하 7.7% /17.6% 30대 8.1% /18.1% 40대 13.3% /21.0% 50대 24.8% /19.9% 60대 이상 46.0% /23.4%	유선전화면접 100%	7.8% /95%신뢰수 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중앙 일보	중앙일보 조 사연구팀 /엠브레인	3.27 19-21 3.28 10-22	유권자 600명	20대 이하 15.7% /17.6% 30대 19.8% /18.1% 40대 22.5% /21.0% 50대 18.2% /19.9% 60대 이상 23.8% /23.4%	유선전화면접 75% 무선전화면접 25%	20.6% /95%신뢰수 준, ±4.0%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동아 일보	코리아 리서치센터	4.3 10-22 4.4 19-22 4.5 10-11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9.8% /17.6% 30대 8.0% /18.1% 40대 26.2% /21.0% 50대 26.0% /19.9% 60대이상 30.0%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6% /95%신뢰수 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사례 2] 용산

YTN (4.6)



[여론조사] 서울 용산 '초접전'

서울 용산은 보수 성향이 짙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진영 후보가 여유있게 당선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내리 3선을 한 진영 후보는 새누리당 컷오프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출마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춘자 후보가 나선 가운데 업치락 뒤치락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는 진영 후보가 4.9%포인트 차,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분열된 두 야당을 여유있게 따돌린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강진 기자

[사례 2] 용산

SBS (4.6)



'탈당파' 진영 '접전'

이번에는 공천에서 탈락해 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이 출마한 지역입니다. 더민주 진영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나 더민주 후보로 나선 서울 용산입니다. 새누리당 황춘자 38.9, 진영 34.7%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국민의당 곽태원 11.3, 정의당 정연욱 후보 2.9%였습니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만 골라 물었더니, 황춘자, 진영 두 사람 간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진영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더라도 오차범위 내 혼전입니다.

한정원 기자

[사례 2] 용산

중앙일보 (4.7)

중앙일보

피 말리는 서울 … 1·2위 격차, 용산 0.2%P 마포을 0.8%P

6일 남은 총선, 수도권 판세는

용산 진영 32.1% 황춘자 31.9%

마포을 김성동 30.7% 손혜원 29.9%

적극투표층서도 격차 1%P 이하

강동을 이재영 36.2% 심재권 29.9%

강서갑 구상찬 31.1% 금태섭 27%

성남 중원 신상진 38.8%로 앞서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의 6차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곳곳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오차범위(±4.0%) 내 접전지였다. 특히 서울 마포을과 용산은 1%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서울 마포을(지난 2~3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가 30.7%, 더민주 손혜원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0.8%포인트 차이다. 적극투표층에서도 김성동(32.2%)-손혜원(32.7%)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 손 후보는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엔 국민의당 김철(8.7%) 후보와 정의당 배준호(5.1%) 후보, 무소속 정명수(3.9%) 후보 등 야권후보가 난립해 있으나 양강구도를 만들어 냈다. 직전 공개된 여론조사(김성동 29.9%-손혜원 22.9%, 조선일보 4일)에 비해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용산(지난달 27~28일 조사) 역시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로 당적을 옮긴 진영(32.1%) 후보와 새누리당 황춘자(31.9%) 후보가 0.2%포인트 차로 초박빙이었다. 적극투표층도 진영 34.2%-황춘자 33.2%로 1%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44.5%)이 더민주(21.0%)보다 두 배 높았다. 3선 의원인 진 후보는 '인물론'으로, '배신의 정치'를 앞세운 새누리당 황 후보와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는 6.8%,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3.0%였다. 부동층이 25.5%에 달해 최대변수로 꼽힌다.

강서갑(3~4일 조사)은 18대 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구상찬(31.1%) 후보와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더민주 금태섭(27.0%)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이 지역도 국민의당 김영근(8.6%), 민주당 신기남(7.3%), 무소속 백철(9.2%) 후보 등이 난립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 간 대결 구도다. 적극투표층에선 구상찬 33.4%-금태섭 30.6%로 격차가 더 좁혀졌다.

강동을(6일 조사)에선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가 36.2%의 지지율로 더민주 심재권(29.9%) 후보를 오차범위 내지만 6.3%포인트 차로 앞섰다. 국민의당 강연재 후보는 1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3~24일 조사(28일 발표)에선 이 후보가 33.1%, 심 후보가 28.8%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가 4.3%포인트였다. 당시 강 후보는 8.8%였다. 하지만 강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2위 후보 간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강동을의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0.1%, 더민주 19.2%, 국민의당 17.5%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마포을(14%)이나 용산(9.6%), 강서갑(15.1%)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지역인 셈이다.

경기 성남 중원(지난달 29~31일 조사)에선 의사협회장 출신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38.8%를 기록해 노동운동가 출신 더민주 윤수미(27%)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는 8.8%였다. 신상진 후보는 적극투표층에서도 41.2% 지지율로 은수미(28.3%)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효식 기자 jjpoi@joongang.co.kr

[사례 2] 서울 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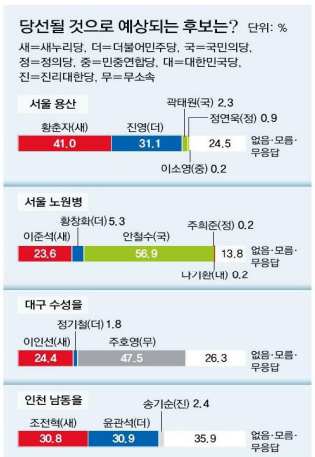
동아일보 (4.7)

2016년 04월 07일
05면 (정치)

東亞日報

황춘자 50대이상-진영 20~40대 '우위'

〈서울 용산〉



서울 용산 여당 지지세 강해… 黨 바꾼 진영 고전

서울 용산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진영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기 때문이다.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진 후보를 지지할지, 아니면 변절을 심판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동아일보-채널A 4차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38.4%)는 진 후보(29.0%)를 9.4%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42.7%)이 우세하다. 야당인 더민주당(18.5%)과 국민의당(19.1%)을 합친 수치보다 높다.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 후보의 자질(29.9%)과 정책·공약(28.7%), 소속 정당(27.1%)이 비슷하게 나와 두 후보 간 막판 표심 모으기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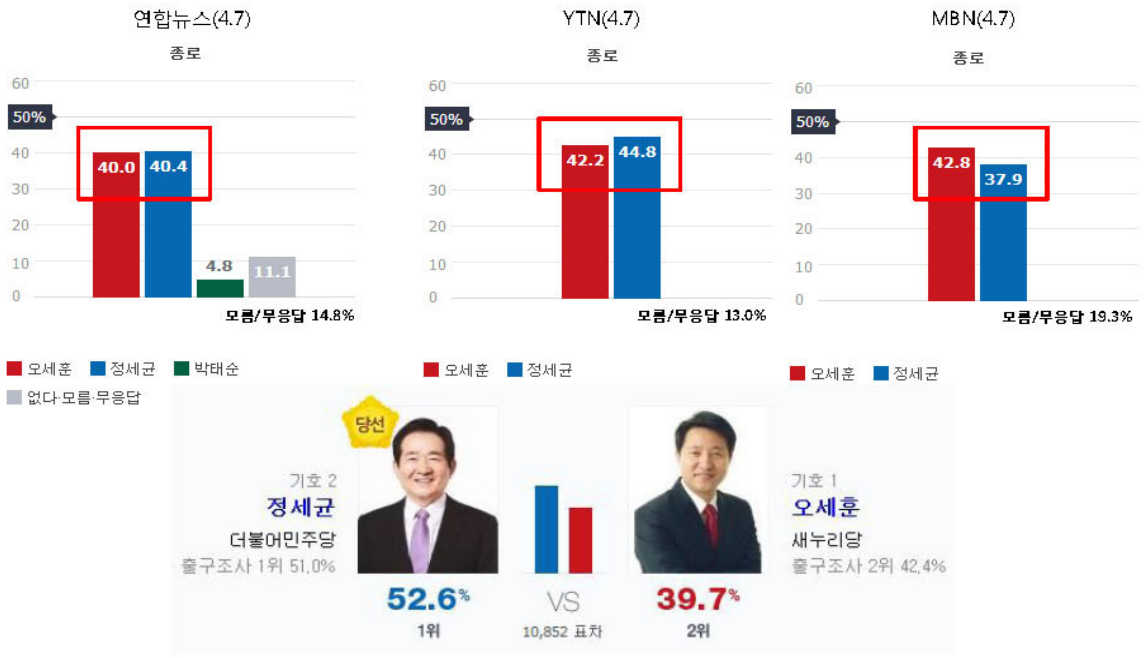
전국 투표층 지지도에서도 황 후보(42.9%)가 진 후보(30.6%)를 앞서고 있다. 연령별로 황 후보는 50대 이상, 진 후보는 20~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결국 후보들 중 누가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에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 측은 "남은 기간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 측은 "용산 지역은 정당보다 후보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23.3×15.9)cm

[사례 3] 종로



[사례 3] 종로

종로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연령비율 (조사대상비율/ 전체유권자비율)	표본 추출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가중방법
연합 뉴스	코리아 리서치센터	4.3 10-22 4.4 10-20 4.5 10-14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8.2% /17.6% 30대 8.2% /18.1% 40대 17.0% /21.0% 50대 28.4% /19.9% 60대 이상 38.2% /23.4%	유선전화면접 100%	7.3%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YTN	마크로밀 엠브레인	4.5 13-22 4.6 10-22	유권자 509명	20대 이하 12.4% /17.6% 30대 12.4% /18.1% 40대 16.5% /21.0% 50대 22.2% /19.9% 60대 이상 36.5% /23.4%	유선전화면접 75% 무선전화면접 25%	15.0%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MBN	리얼미터	4.5 9-22 4.6 9-22	유권자 508명	20대 이하 10.0% /17.6% 30대 8.3% /18.1% 40대 14.6% /21.0% 50대 21.3% /19.9% 60대 이상 45.9%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1% /95%신뢰수준, ±4.3%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사례 3] 종로

YTN (4.7)



http://www.ytn.co.kr/_ln/0101_201604070431271233

[여론조사] 정세균, 오세훈에 오차 범위 내 첫 역전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의 정세균 후보가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의 대결!
새누리당 오세훈 42.2%, 더민주 정세균 44.8%로 두 후보의 격차는 2.6%p였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안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 55.9%, 정세균 35.7%였습니다.

이종구 기자

[사례 3] 종로

MBN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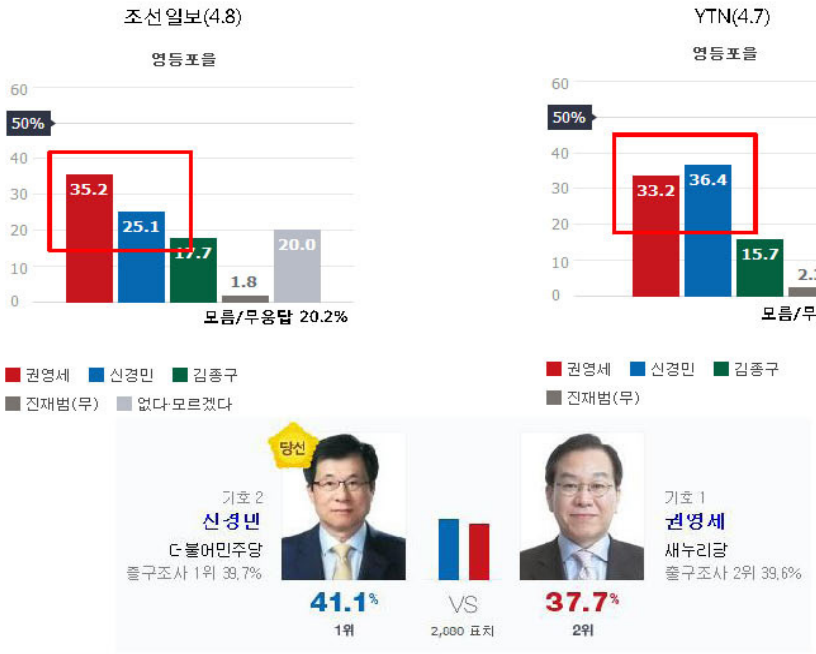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843253

[MBN 여론조사] 오세훈 42.8%·정세균 37.9%

7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3일 총선 투표 마감까지 새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깜깜이'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 6일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오차 범위 안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42.8%,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9%를 기록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오 후보가 50.5%를 기록해 32.7%에 그친 정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이성식 기자

[사례 4] 영등포을



[사례 4] 영등포을

영등포을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연령비율 (조사대상비율/ 전체유권자비율)	표본 추출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가중방법
조선일보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4.5 13-22 4.6 10-22	유권자 511명	20대 이하 12.3% /17.6% 30대 12.9% /18.1% 40대 20.9% /21.0% 50대 24.1% /19.9% 60대 이상 29.7% /23.4%	유선전화면접 100%	7.7% /95%신뢰수준, ±4.3%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YTN	마크로밀엠브레인	4.5 13-22 4.6 10-22	유권자 507명	20대 이하 15.8% /17.6% 30대 14.4% /18.1% 40대 15.4% /21.0% 50대 20.3% /19.9% 60대 이상 34.1% /23.4%	유선전화면접 70% 무선전화면접 30%	16.8%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사례 4] 영등포을

조선일보 (4.8)

朝鮮日報

2016년 04월 08일
04면 (종합)

'리턴매치' 권영세 35.2 〈새누리〉 신경민 25.1% 〈더민주〉

서울 영등포을



권영세(새) 35.2 | 신경민(더) 25.1 | 김종구(국) 17.7

4년 만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서울 영등포을에선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권 후보 지지율은 35.2%로 신 후보(25.1%)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도 37.5% 대 26.7%로 비슷한 차이였다. 이 밖에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는 17.7%, 무소속 진재범 후보는 1.8%, 민중연합당 성성붕 후보는 0.2%였다.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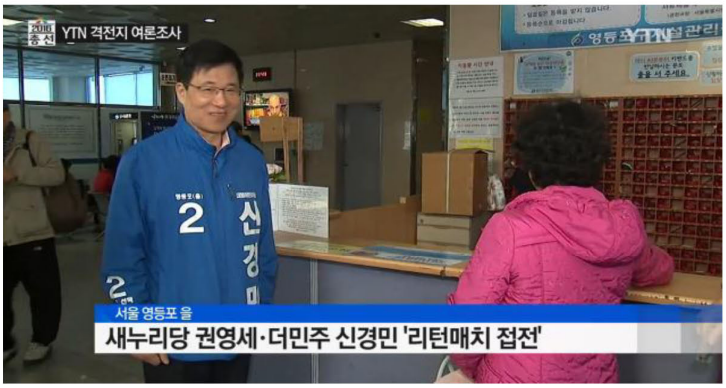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3선의 여당 중진인 권 후보를 52.6% 대 47.4%로 꺾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권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신 후보에게 패한 권 후보는 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대선을 치른 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중 대사를 지냈다. 당 관계자는 "권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설욕을 위해 작년 3월 일찌감치 대사직을 던지고 지역구를 관리해왔다"고 했다. 야권에선 "제3당(국민의당) 효과도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서울 영등포을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5.3%, 더민주 16.5%, 국민의당 21.8%로 조사됐다.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두 야당 간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의 19세 이상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이고 응답률은 7.7%였다.

이용수 기자

(11.1×13.2)cm

[사례 4] 영등포을

YTN (4.7)



http://www.ytn.co.kr/_ln/0101_201604070431344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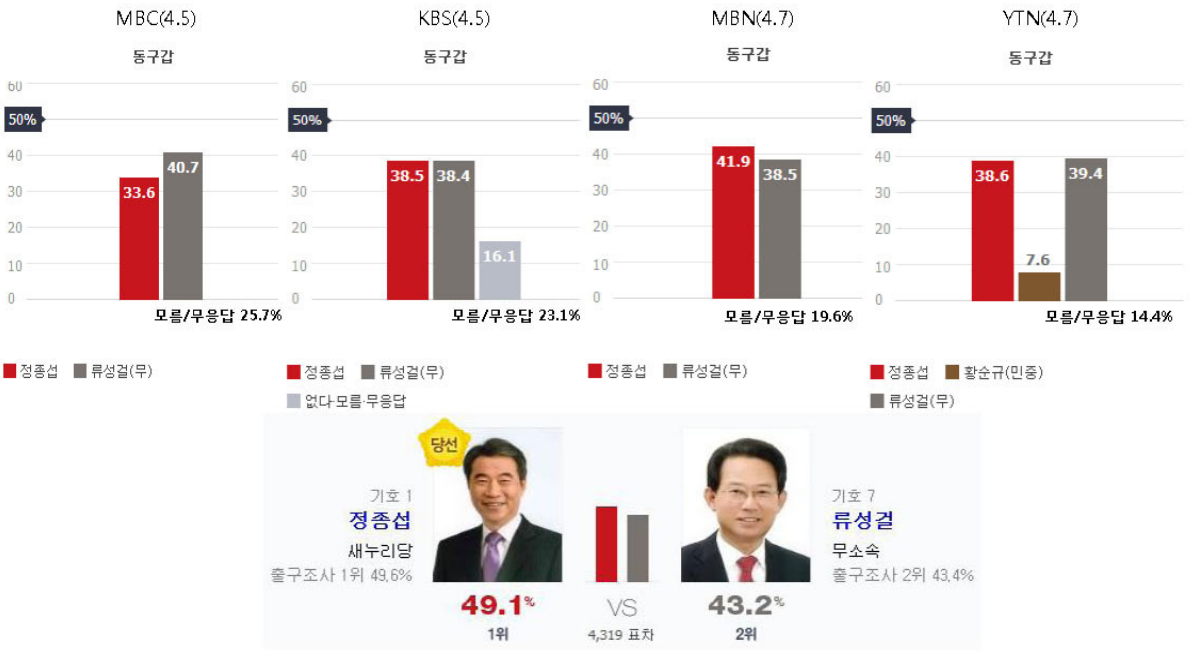
[여론조사] 수도권 주요 리턴매치 '초접전'

국회의사당을 끼고 있는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재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접전.

지지도는 3.2%p 차이로 신 후보가 앞서지만 당선가능성에서는 '46.9 대 32.0'로 권 후보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도 새누리당 35.1% 더민주 24.1%여서 이 지역구 승부는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기 기자

[사례 5] 대구 동구갑



[사례 5] 대구 동구갑

동구갑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연령비율 (조사대상비율/ 전체유권자비율)	표본 추출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가중방법
MBC	리서치앤리서치	4.1 10-22 4.2 10-22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11.2% /17.6% 30대 8.4% /18.1% 40대 16.0% /21.0% 50대 26.0% /19.9% 60대 이상 38.4%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7% /95%신뢰수준, ±4.3%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KBS	코리아리서치센터	4.1 14-22 4.2 10-22 4.3 10-15	유권자 500명	20대 이하 8.0% /17.6% 30대 7.0% /18.1% 40대 19.4% /21.0% 50대 27.2% /19.9% 60대 이상 38.4%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3%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MBN	리얼미터	4.5 09-22 4.6 09-22	유권자 515명	20대 이하 6.2% /17.6% 30대 6.8% /18.1% 40대 15.3% /21.0% 50대 23.3% /19.9% 60대 이상 48.3% /23.4%	유선전화면접 100%	10.3% /95%신뢰수준, ±4.3%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YTN	마크로밀엠브레인	4.5 13-22 4.6 10-22	유권자 509명	20대 이하 12.4% /17.6% 30대 12.4% /18.1% 40대 16.5% /21.0% 50대 22.2% /19.9% 60대 이상 36.5% /23.4%	유선전화면접 75% 무선전화면접 25%	15.0% /95%신뢰수준, ±4.4%p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

[사례 5] 대구 동구갑

MBC (4.5)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34701_19842.html

[MBC 여론조사] 여야 '텃밭' 예측 불허 승부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여파가 미친 대구 동구갑입니다.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와 무소속 류성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후보간 격차가 줄었고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땐 반대로 정 후보를 더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 마다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이틀 간 조사했으며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입니다.
결과는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

[사례 5] 대구 동구갑

KBS (4.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9712&ref=A

[여론조사] 정종섭 류성걸 박빙

대구 동구갑은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가 38.5%,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류성걸 후보가 38.4%로 초접전 양상이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정종섭 후보가 48.2%로 류성걸 후보(26.6%)보다 20%p 이상 높게 나왔다.정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류 후보는 20대부터 40대 사이에 강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철 기자

[사례 5] 대구 동구갑

MBN (4.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843269

[MBN 여론조사] '새누리 텃밭' 대구 이변 있을까?

새누리당 친박 후보들과 더민주·무소속 후보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대구.
대구 동갑에서는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 지지율이 41.9%, 무소속 류성걸 후보 지지율이 38.5%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가 3.4%p에 지나지 않는 박빙 대결입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정종섭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정종섭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권열 기자

[사례 5] 대구 동구갑

YTN (4.7)



http://www.ytn.co.kr/_ln/0101_201604070431414719

[여론조사] 대구 동구 갑 '여권 고전'

대구 동구 갑에서는 고등학교 동창끼리 맞붙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 끝에 진박 정종섭 후보와 유승민계 류성걸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정종섭 38.6%, 무소속 류성걸 39.4%, 불과 0.8%포인트 차이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 정종섭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동우 기자

III. 여론조사 예측 실패 원인 (1)

- 돈이 많이 들지 않는 ARS,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시행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록 여론조사 총 1천55개)
- 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ARS는 비과학적 조사" "응답률 낮은 조사는 공표해서는 안돼"

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사)한국조사협회, ARS 여론조사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

-ARS(자동응답)조사, 응답률 낮고 부정확해 비과학적

-여론은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역할, 여론조사에 ARS 활용하면 안돼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 (한국통계학회)

한 국 통 계 학 회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709호 우135-703
E-mail : office@kss.or.kr 홈페이지 : http://www.kss.or.kr
TEL (02)3453-7862, 567-3859 FAX 02)564-7285

문 서 번 호 : 2011 - 009 2011. 10. 14
수 신 : (사) 한국조사협회 회장
제 목 :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 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 조사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론조사를 배격하며, 통계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 한국통계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71년에 창립되었으며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급증하고 있는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조사방법론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저희 학회에서는 이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s.or.kr)

별 첨 : 1.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서 1부. 끝.

사단법인 한 국 통 계 학 회 장 최 공 석

-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은 검증된 바 없음, 극히 제한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사용 자제
- 특히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문과 방송 등에서 인용하는 것 자제, 불가피할 경우 해당 조사가 갖고 있는 제한점 명기하여 보도
- 표본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대부분의 오차들 수반
- 여러가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비용 투입되지 않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특히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에서는 부적합

III. 여론조사 예측 실패 원인 (2)

● 불완전한 자료에서 뽑은 표본…성별, 연령별 한계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율	17.6%	18.1%	21.0%	19.9%	23.4%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결과(서울 종로)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234 명, 여성 266 명 | 합계 : 500명					
	20대 이하 41 명, (8.2%)	30대 41 명, (8.2%)	40대 85 명, (17.0%)	50대 142 명, (28.4%)	60대 이상 191 명, (38.2%)	| 합계 : 500명

YTN 여론조사결과(서울 종로)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239 명, 여성 270 명 | 합계 : 509명					
	20대 이하 63 명, (12.4%)	30대 63 명, (12.4%)	40대 84 명, (16.5%)	50대 113 명, (22.2%)	60대 이상 186 명, (36.5%)	합계 : 509명

SBS 여론조사결과(서울 종로)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245 명, 여성 258 명 | 합계 : 503명					
	20대 이하 44 명, (8.6%)	30대 34 명, (6.7%)	40대 81 명, (15.9%)	50대 144 명, (28.3%)	60대 이상 200 명, (39.3%)	합계 : 503명

IV.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한겨레

2016년 04월 07일 31면 (사설/칼럼)

부정확한 여론조사 홍수, 제도개선 시급하다

7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선거 마지막 1주일간 유권자들은 여론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깜깜이 선거' 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는 1천건이 넘는다. 매일 수십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같은 지역구의 조사결과가 이쪽 극 접전이고 이쪽 극 오차범위 밖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돕자는 취지다. 그런데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난무한다면 유권자 판단을 흐릴 뿐아니라 여론 조작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 여론조사는 십전화(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집전화는 가입률이 50%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응답률도 매우 낮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고령층과 주부 등에 편중된다. 이를 보완하려고 지역별·성별·나이별 가중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한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응답률도 높은 휴대전화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동통신업체가 임의 정당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여야 정당들은 '안심번호'로 총선 후보자를 뽑는 내부 경선을 치렀다. 지금도 자체 판세분석에 '안심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정당은 정확한 데이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에 춤추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여론조사의 표집단을 정당만이 독점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임살을 부리거나 우세를 장담하는 식으로 여론 왜곡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의 눈을 가리게 되는 꼴이다.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모두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선 필요가 있다.

(14.7×13.0)cm

4.7 〈한겨레〉 사설

중앙일보

2016년 04월 06일 30면 (사설/칼럼)

유권자 판단 흐리는 여론조사 정비 필요하다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원내 과반의석은커녕 135석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집 전화 여론조사' 방식에 휴대전화 표본을 섞었더니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의 확실 우세지역이 25곳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심야 긴급 선대위회의를 소집하는 등 호들갑이다.

하지만 정작 어리둥절한 건 유권자다. 어안이 벙벙한 걸 넘어 현기증을 느낀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곳 중 40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총선 상황실을 포함해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수치다. 그러니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투표장에 내몰려는 새누리당의 엄살이란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들쭉날쭉 활용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판세 분석의 근거가 되는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건 사실이다. 가족이나 동일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별로 상반되거나 지지율이 제각각이어서 혀를 차게 만드는 게 한국의 여론조사 시장이다. 100개가 넘게 난립한 조사 회사들이 응답률 2%가 되지 않는 자동응답기 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낸다. 표본과 응답률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7개 여론조사기관, 53개 조사를 적발해 처벌했다. 전문가들조차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표심을 출렁이게 하고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정치 현장에서 의사 결정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생명이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려면 문항 내용과 표본 채취를 공개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해 신뢰성을 검증받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총선을 계기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4.9×9.3)cm

4.6 〈중앙일보〉 사설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여론조사 심의 기준 강화

- 여론조사 심의 기준 강화

➢ 현재 조사방법 표본 크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심의위에 등록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 등 580개의 체크리스트 심의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 도입 필요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ARS 조사 규범 준수

- **ARS조사 관련 KORA 회원사 행동규범(2014.6.18 KORA 이사회 결의)**

제1조 한국조사협회의 회원사는 ARS를 이용한 조사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제2조 이를 어겼을 경우 한국조사협회의 정관 10조 3호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이사회는 회장에게 회원제명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3조 세부내용을 참조한다.

제3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RS의 개념 규정: 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저장하여 두고 사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면 음성으로 정보를 안내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유사어로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ACS (Automatic Calling System) 등이 있음.

2) ARS를 통한 조사의 규정: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주요 문항의 응답은 ARS를 통해 진행되는 조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
이의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응답 값을 받지 않거나 프로파일만 확인하는 전화번호 DB의 유효성 검증이나 억세스 패널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ARS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특정문항의 비밀보호를 위해 ARS를 활용하도록 고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ARS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는 예외로 한다.
④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조사는 예외로 한다.

3) ARS 조사 수행의 의미
① 자체적인 용역수행뿐만 아니라 외주를 통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해당하고 자체적인 목적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②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국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용역에 한한다

4) 상기 내용들의 저촉 여부 판단은 협회 윤리분과위원회에 하며, 윤리분과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5) 상기 내용 관련 행동규범 위반자 제명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이 사실을 제명 대상자에게 알려야하고 제명 대상자는 이사회에 소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안심번호 이용

- 안심번호 이용

➢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번호가 아닌 일회용 가상번호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
➢ 유선전화에 비해 응답률이 높아 신뢰도가 높아짐
➢ 현재 정당에만 허용된 안심번호 통한 휴대전화 조사방식

새누리당은 알고 있었다?



朝鮮日報

與 "과반은커녕, 135석 안팎"… 진짜? 엄살?

새누리 자체 조사결과에 "초비상"

4·13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애초 목표로 한 과반 의석(151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 '집 전화 여론조사' 방식에 휴대전화 조사를 가미했더니 과반 의석에 훨씬 못 미치는 130~140석에 그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투력화하겠다며 '180석 이상'을 내세웠다가 최근 과반 의석으로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그랬던 김 대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4일 심야 긴급 선대위 회의를 소집했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수도권 선거구 122곳(서울 49, 경기 60, 인천 13)을 포함한 전국 200여 선거구를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2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확실 우세' 지역은 25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당 후보가 서울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는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갑, 등작을 등 7~8곳이었다. 경기도는 성남분당갑, 성남분당을, 평택갑, 평택을, 하남, 용인갑, 용인병, 파주을, 이천, 안성, 김포을, 화성갑, 포천·가평, 여주·양평 등 12~14곳, 인천은 남갑 등 3~5곳 정도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전체 65곳에서 최소 8석을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집 전화 표본 80%에 휴대전화 표본 20%를 섞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여론조사를 집 전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야는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층이 많은 젊은 층 유권자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휴대전화 표본을 섞어 조사했더니 집 전화만 활용한 때보다 수도권 후보가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떨어졌고 전체 의석 수 전망치가 135석 안팎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권성동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를 가미해 조사했더니 이전까지 '경합 우세'로 분류했던 수도권 지역 중 상당수가 '경합 박빙' 이나 '경합 열세'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 투표층 비율이 높았던 50·60대 지지자 중 이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도 위기 신호"라고 했다.

[illegible] 실시한 정당 지지율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마지막 주(29~31일) 정기 지표에서 서울은 1주일 사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8%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파동 등으로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무성 대표는 지방 유세를 마치고 급히 서울로 올라와 여의도 당사에서 심야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과반은 고사하고 원내 1당 싸움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감했다"며 "우선 공천 파동 등으로 돌아선 진통 지지층을 복원하고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결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공천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지자들은 꼭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분석의 근거가 되는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일종의 엄살 부리기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최경운 기자

휴대전화 조사 가미했더니…
"수도권 확실 우세는 25곳 불과
영남권서도 최소 8석은 빼앗겨"
어제 한밤에 긴급 선대위 소집

일각 "지지층 위기감 자극 전략"

새누리당의 의석 목표·전망치 변화

180석 → 160석 → 151석 → 135석

- 180석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시킬 180석 이상이 목표" 2016년 1월 4일 김무성 대표
- 160석 "160석 정도면 성공이고 최후 방어선은 과반(151석)" 3월 26일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 151석 "과반 의석(151석)도 간당간당하다" 4월 2일 김무성
- 135석 "과반은 고사하고 원내 1당 간신히 지킬 수준의 135석 정도로 내려앉았다" 4월 4일 권성동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KBS · 연합뉴스 공동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센터)

문항 1. 선생님께서는 이번 달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항 2.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그러면, 선생님의 지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MBC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

문항 1. 선생님께서는 이번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항 2.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단일화를 통해 야권 단일화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다음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항 5.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SBS 여론조사(TNS KOREA)

문항 1. 오는 4월 13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실 생각이세요?

문항 2. 내일이 바로 선거일이라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만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다음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YTN 여론조사(마르코밀엠브레인)

문항 1. 귀하께서는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 2. 귀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2-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시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문항 3. 귀하의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문항 4.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항 4-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시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MBN 여론조사(리얼미터)

문항 1.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항 2. 선생님께서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다음 불러드리는 후보들이 출마하는데요.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그렇다면 조금 전 불러드린 후보들 중 당선가능성은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항 5. 선생님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조선일보 여론조사(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문항 1. 신생님께서는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신거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문항 2.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 후보, 더불어민주당 ○○○ 후보, 국민의당 ○○○ 후보 등이 출마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현재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중앙일보 여론조사(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엠브레인)

문항 1.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님께선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생각입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문항 2.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등이 출마했습니다. 선생님께선 이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없는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문항 3.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없는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이번 총선에 여야 후보 선택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1)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야 2)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 후보를 찍어야 9)모름/모르겠다/무응답/말할 수 없다

문항 5.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동아일보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

문항 1. 선생님께서는 이번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항 2.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3.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단일화를 통해 다음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4. 선생님께서는 다음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항 5.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 6.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실 때 후보자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문항 7. 선생님께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다음의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십니까?
1)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2)야당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3)모름/무응답

문항 8.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심층태도 질문 사례]

※ "Do you care?"를 묻지 않을 때와 물었을 때 응답률의 차이는 매우 큼

A: "Do you support for going to war with Iraq?"

→ 59%의 응답자가 "Yes, I do."라고 응답

B: "Whether or not respondents would be upset if the government did not send troops into Iraq?"

→ 29%의 응답자가 "전쟁이 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이라고 응답

→ 30%는 "전쟁이 나면 화가 날 것"이라고 응답

→ 41%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응답

[David Moore, Vice-president of the Gallup in 2003]

Ⅳ.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방안: 심층태도 조사문항 추가



한겨레 정치BAR 정치부 기자들이 본 총선

모두가 빗나간 예측…유권자들 '산수'를 '수학'으로 풀었다

선거 직전 여야가 본 판세

새누리 선거 임박해서도 청와대에 '165석 넘는다' 보고설

더민주, 수도권 잘나오자 "못 믿겠다"

여야 지지층 스펙트럼 다양

종편, 하루종일 새누리 생중계로 50~60대 이상에 정치적 환멸 줘

'강남벨트 기적'은 지방선거때 예고

여야 모두 '국민의당 효과' 오판

문재인 "국당 찍으면 여 어부지리"

새누리 "국당, 끝까지 완주" 격려도

국당이 여 지지층 일부 흡수 효과

지역구 민심 르포 다녀보니

부산·대구, 여 지지층 '이반' 조짐

김부겸·전재수 등 야당 당선자들

진짜 주민들 마음 얻은 사람들

※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접근법 필요 (20대 총선 국면에서)

- 잡권 여당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예] 국정수행, 정책, 공천 등]
- 3당 체제 하 정당별 정체성 및 미래의 기대 역할에 대한 평가 [예] 국민의당]
- 정당에 대한 유권자 '감정' 평가 [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 후보자 개인의 인성(personality)에 '감정' 평가 [예] '싸가지']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1. 정치 영역에서의 관행 저널리즘

- 출입처의 공식 취재원에 의존하는 저널리즘(beat journalism)
- 권력 취재원의 일상적인 활동에 주목하는 보도(official source 〉 civic community)
- 경쟁적 관계에 있는 주장의 진실성을 평가하려는 자세 부재(as a transmitter)
- 선거를 정당 간 혹은 후보자 간 경연장(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game schema)
- 기계적 균형성(대립적 관점 병렬 배치)을 객관주의 저널리즘 실천 관행으로 간주(balance ↔ impartiality)
- 갈등 국면의 전개 과정에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conflict, novelty)

① 앞서 설명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무시
②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으로 착각(?)하여 함의를 해석하는 잘못된 관행
③ 현장을 외면한 채 여의도에 갇힌 정치 분석만 가득한 정치기사
④ 고위 당직자의 말과 행동을 반복하여 전달하는 취재시스템
⑤ 신뢰하기 어려운 취재원 활용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2.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인식

1) 여론과 여론조사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뉴스를 통해 정치적 현실을 구성

> The world that we have to deal with politically is out of reach, out of sight, out of mind. It has to be explored, reported, and imagined.
>
>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p. 29]

- 여론조사는 매개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통화(political currency)나 다름없으며, 이를 보도하는 뉴스에 담긴 결과(수치)는 언론이 드라마틱한 형태로 구성하는 공공 정책 담론에서 상징 공중(symbolic public)으로 간주됨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2.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인식

2) 여론조사 뉴스

- 조사방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론조사를 뉴스의 형태로 전하는 관행 채택
- 여론조사 뉴스는 종종 이슈에 대한 공중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근거가 있는 의견을 가졌다는 잘못된 인상을 전달

  →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으로 '착각'(?)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언론은 심층적인 태도(감정)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가 일반적인 질문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음

  → 언론은 "명확한(clear)" 공중의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임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 언론은 "모름(don't know)" 응답률이 내포하는 함의를 고려하지 않음

※ ["모름(don't know)"의 함의 (Schuman, 2008)]

- 선택행위(예, 투표 대상자 및 정당 선택)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갈등적 상황
-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면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 표현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음 → 'artificial results'를 낳음

※ [여론조사 뉴스] (David Moore, Vice-president of the Gallup in 2003)

- 응답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강요
- 언론은 공중이 이성적이고, 지식을 갖췄고, 현실 참여적이라는 신화를 공유하여 대다수가 '의견없음'이라는 결과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2.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인식

- 여론조사 설계에 대한 특성을 따지지 않고 조사비용만 고려해서 선거 여론조사 의뢰
- 선거 여론조사 관련 필수 정보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기사 작성
- 여론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아닌 단순한 후보 지지율의 변화에 주목하는 관행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록 여론조사 총 1천55개(4월 5일 현재)
- 언론사 여론조사 뉴스 과잉 생산

7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보도 현황(3.29~4.7)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여론조사 보도량	15	2	13	12	25	22	43
여론조사 관련 비판보도	1	-	-	4	2	-	-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 많은 여론조사보도에도 불구,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에는 관심없는 방송사
- KBS, JTBC, TV조선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 보인 방송사 없음

– "들쭉날쭉 여론조사 이유는?" [KBS뉴스9, 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7955)

– "이틀만에 20%p가 왔다갔다? … 못믿을 여론조사" [TV조선 뉴스쇼 판, 3.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90157.html)

– "부실한 일부 여론조사… 부동층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 [JTBC 뉴스룸, 4.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7737&pDate=20160405)

V. 선거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 MBC의 여론조사 편파해석
  - 4월 5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자의적 해석
  - "오세훈, 안철수 우세… 수도권 판세는?"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34700_19842.html?menuid=nwdesk)

새누리 황춘자	36.2%	3.7%p 차이	"소폭 앞섰습니다"	새누리 강기윤	31.2%	3.6%p 차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민주 진영	35.2%			정의당 노회찬	34.8%		
새누리 정종섭	33.6%	7.1%p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더민주 김성주	41.8%	8.6%p 차이	"앞섰고"
무소속 류성걸	40.7%			국민의당 정동영	33.2%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출처: 언론노조 MBC 본부

VI. 결론 및 제언

1. 여론조사 방법론 차원

-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사 권한(조사회사) 확대로 표집편향 문제 해결
-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의도를 파악하는 심층 질문 문항 사용
- 여론조사 심의기준 강화(예, '국제표준화기구' 5800개 체크리스트 심의 인증 제도)

VI. 결론 및 제언

2. 법적·제도적 차원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개정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
- 여론조사 업계 종사자의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여론조사 결과의 전략적 활용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

VI. 결론 및 제언

3.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차원

- 과도한 경마저널리즘 관행 개선
- 여론조사 결과 해석 관련 부적절한 관행 개선(표집오차, 응답률, 편향적 해석)
- 승패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 구축 목적의 미래 지향적 여론조사 뉴스 생산으로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 기준 제공
-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여론조사 뉴스는 언론의 공적 책무 실천에 부합

감사합니다!

『2016 국민대통합위 언론인 세미나』 운영계획

□ 운영개요

○ 목적

- 건강한 저널리즘 정착과 사회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중견 언론인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논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언론 생태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발굴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요구되는 언론의 사회통합 역할 모색

○ 개최 형식

- 개최 주기는 매월 일정한 시간에 2시간 동안 진행
  * 첫 세미나는 '16. 4.22(금) 15:00로 하며 이후 일정은 정례화 예정
- 전문가 발제 및 언론인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

○ 참여 범위

- 세미나 취지에 공감하고, 생산적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오픈세미나로 진행
  * 대통합위 2016 '화합과 상생 포럼' 소속 언론인 및 2015년 언론분과 활동 및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언론계 인사와 관련 추천 인사 등
  * 언론사 배경을 다양하게 구성(신문사, 방송사, 종편방송, 시사잡지 등)

○ 결과 활용

- 저널리즘 품질 개선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언론계 자율적 실천방안과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차원의 과제 도출
- 관련 논의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언론 홍보 및 관계기관(국회, 부처, 협회,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추진

□ 2015년 활동 평가

○ 주요 활동

- 연 7회 언론인 세미나 개최
- 갈등 극복을 위한 언론의 취재·제작·보도 품질개선 방안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 등 심층 논의

〈1차 세미나〉
- 주제 : “대형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태도, 문제와 과제는?”(5.21)

〈2차 세미나〉
- 주제 : “갈등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9.15)

〈기획 세미나 : 4회〉
- 언론의 국민통합 역할 탐색을 위한 중견언론인 기획세미나
  * (제1차, 6.23) 공직자 인사 검증보도의 문제
  * (제2차, 7.1) 갈등유발 방송뉴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차, 7.15) 검찰보도와 사회적 의혹의 증폭
  * (제4차, 7.22) 재난보도와 사회적 불안의 극복

※ 연구과제(이준웅·민영 교수)에 포함하여 진행

〈국회 세미나〉
- 주제 : “사회통합을 위한 저널리즘의 공공성 제고방안”(12.7)

○ 의의와 한계

- (의의) 저널리즘의 본질인 사실보도와 생산적 담론 형성에 역행하여 정파적 경향성과 갈등을 확대하는 언론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대안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이 진솔하게 논의하는 기회 마련
- (한계) 문제와 대안에 대해 언론계의 공감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 부족, 언론인이 아닌 언론사와 관련 부분과 제도적 요소 등에 대한 논의 한계, 신문사 보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갈등 파장이 큰 종편, 인터넷 등에 대한 진단과 대안 탐색이 부족

※ ‘16년은 ‘15년과 차별화 및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 필요

□ 2016년 활동 주제

○ 방향 (‘16.3.31 언론인 간담회 및 회의 개최결과)

- ① 4대 갈등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 이슈*를 다루는 보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② 언론 생태환경 개선방안이라는 두 개 방향으로 접근

* 4대 갈등 :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관련 이슈를 다룬 보도 프레임 분석과 대안 탐색, 좋은 보도 사례 공유 등

* 언론환경 : 뉴미디어 환경에서 양질 보도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자율적 실천방안, positive 방식의 언론 지원 방안, 사회적 협의체 구성방안 등

- 언론 생태계 개선방안은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별도의 보고서 산출 및 확대 논의의 장 마련

○ 세부 주제(안)

- 언론인 간담회 개최 후, 회의를 거쳐 연간 주제안, 일정 등 확정

★1차는 확정

회차	주 제	발제자(잠정안)	비고
1차(4.22)	여론조사의 언론 활용 현실과 개선과제	김춘식 교수 (한국외대)	언론환경
2차(5월)	언론 신뢰와 저널리즘 품질 개선 방안	민영 교수 (고려대)	언론환경
3차(6월)	계층갈등 보도 분석과 대안 (금수저-흙수저 논쟁을 중심으로)	김세은 교수 (강원대)	계층갈등
4차(7월)	인터넷 뉴스 생태계와 시민 갈등 재생산 구조	한규섭 교수 (서울대)	언론환경
5차(8월)	이념갈등 보도 분석과 대안 (언론에 비쳐진 이념 스펙트럼 분석)	윤성이 교수 (경희대)	이념갈등
6차(9월)	지역갈등 보도 분석과 대안 (지역화합과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선호 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갈등
7차(10월)	세대갈등 보도 분석과 대안 (청년과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김예란 교수 (광운대)	세대갈등
8차(11월)	갈등 저널리즘의 극복방안	이재경 교수 (이화여대)	언론환경
9차(12월)	언론 품질경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이준웅 교수 (서울대)	종합

* 주제는 대통합위에서 의뢰하는 주제이며, 발제자는 섭외 대상자이며 변경 가능

[붙임]

언론인 세미나 참석대상 Pool

소속	직함	성명	비고
연합뉴스	부국장	김민철	2015 포럼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2016 포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선호	2015 포럼
YTN	부국장	김진호	2015 포럼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박주병	2016 포럼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선희	2016 포럼
뉴시스	부국장(정치부장)	염영남	추천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	추천
채널A	사회부장	이명건	2015 포럼
동아일보	편집위원	이정훈	2016 포럼
KBS	보도위원	정필모	2015 참여
서울신문	부국장	진경호	2015-2016 포럼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최영재	2016 포럼
국민일보	부국장	최현수	2016 포럼
문화일보	논설위원	황성준	2016 포럼

* 가나다 순

MEMO



MEMO

